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5>



불량만두에 분노하는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의 자투리를 만두, 야채전빵 등의 재료로 식품업체에 납품한 악덕 업체에 관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유사한 행위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만두소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두소 제조업자 이모 씨는 단무지 제조업체에서 단무지를 만든 다음 생기는 폐기 처리용 자투리를 가져다 만두소 원료로 썼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두소는 중국산 단무지의 자투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으로 둔갑해 지난 99년 말부터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5년 동안 국내 25개 유명 만두 및 제빵업체에 납품했다. 경찰은 문제의 만두소로 만들어진 만두와 야채전빵은 학교급식, 군납, 대형 할인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분식집 등 전국적으로 유통됐다고 전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다 보니 전국민이 쓰레기 원료로 만든 만두를 한두번 정도는 먹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릇되게 돈을 버는 범죄 행위에 정말 분노하게 된다.

먹은 것은 광야의 험난한 길을 벗어나기 위한가 아닌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마땅히 그와 같이 관찰하라. 그와 같이 관찰하면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을 줄 알 것이요, 음식에 대한 집착을 끊을 줄 알고 나면 5욕의 대상에 대한 탐에(貪愛)가 곧 끊어질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는 다소 잔인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식을 죽여서라도 육신을 보존하는 것은 광야를 건너가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여기서 광야란 생사 윤회의 세계를 의미한다. 음식을 먹고 육체를 보존하는 이유는 색욕 등 오욕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려는 것도 아니라 하는 사실이다. 윤회의 세계를 넘어가기 위해 건강간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육체는 붓다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그릇, 즉 법기(法器)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겉모양은 훌륭한데 그릇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탐욕, 분노, 무지로 가득차 있다면 그것은 황금

음식은 많은 생명체를 희생시킨 결과물 “먹는 행위는 외아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다”

연일 쏟아지는 쓰레기 만두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접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소비자로 반성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의 경전(자육경, 子肉經)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 지를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실 때 하신 말씀이다. “비구는 음식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비유하면 어떤 부모에게 사랑하고 늘 생각하며 보살펴 기른 외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넓은 광야를 지나려고 하다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림의 고통이 극에 달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부부는 ‘이젠 너무도 사랑하는 외아들만 남았다. 만일 그 이들의 삶을 먹는다면 이 험난한 곳을 벗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세 사람 모두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의논하였다. 이렇게 의논한 뒤에 곧 그 아들을 죽여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그 살을 먹고 광야를 벗어나게 된 경우와 같다. 어떠한가? 비구들이야, 그 부부는 아들의 살을 함께 먹으면서, 과연 그 맛을 취하고 그 맛의 좋음을 즐기고 맛을 탐하며 맛보겠느냐?”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부처님이 물었다. “비구들이야, 부부가 억지로 그 자식의 살을

으로 만든 그릇에 깨밥을 넣는 것과 같다. 음식을 먹는 것은 육신의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수행에 알맞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신탁 위에 올려지는 음식들은 많은 생명체의 희생이 깃들여 있다. 고기 반찬은 돼지나 소, 닭 등 동물을 희생시킨 것이며 신선한 생선이나 회는 물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를 죽인 것이다. 야채도 살아 있던 채소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여 우리 식탁에 올린 것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킨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외아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라 하셨다. 자식의 살을 먹으면서 맛을 즐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아들의 회생을 가슴 아파하며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하여 더욱더 정진할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지도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이 불량 만두소 제조업자에게 화만 내고 있다면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마다 무릇을 위해 음식을 먹고 있는 지 반성하라 고요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6월 14일 제16세 태고종 종정으로 추대된 혜초(慧超) 스님은 철저한 계행으로 수행자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태고종 법맥의 큰 줄기를 형성해 온 전 종정 대륜 스님과 덕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어 태고종 종도들의 사표가 되어 왔다. 종정 추대에 즈음해 혜초 스님으로부터 법문을 청해 들었다.

바른 믿음은 수행의 근본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일은 참으로 어려서인입니다.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중생(衆生)입니다. 공업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합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 공업중생을 이룰 수 있는 조화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조화로운 세계는 분별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분별심을 버리면 처치가 부처일 따름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때마다 청정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좋은 생각과 성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심사도(平常心是道)라 했습니다. 순간순간 청정할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것은 입장이 무거운 소치입니다. 자신이 될 배웠고 어느 절에 다니고 어떤 스님을 만난 것은 전혀 이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을 대단한 경력인양 으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큰나무가 되기도 전에 조그만 바람에도 쓰러지는 뿌리가 얇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큰 나무가 됩니다. 신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법(邪法)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엄경>에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源功德母) 장양일체제선근(長養一切諸善根)”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가 되어 모든 선업의 뿌리를 키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일 때야 아래의 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수행의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나 움직이는 주인공을 보라

모든 일에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우선합니다.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선악도 있고, 감정도 있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땅, 물, 불, 바람 4대가 나일까요? 아니면 눈, 코, 혀, 몸, 뜻 육근이 나일까요? 이 몸중 이를 움직이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몸공의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를 움직이는 것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철저한 계행과 엄격한 수행으로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는 혜초 스님.

분별심 사라지면

살피고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답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따로 해주지 않았 습니다. 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 니다. 오로지 수행을 통해 스스로 깨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찾 지 못하면 헛고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것이 인간의 일만은 아닙니다. 일체중생에게는 모두 오고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것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오르니 그것을 낮이라 하고, 저 너머로 기우니 밤이라 할 뿐입니다. 그 태양의 오고감을 두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 니다. 이처럼 오고감으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곧 여래의 오고감입니다. 제행(諸行)이

무상(無常)하지만 분래면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불미생전(古佛未生前)
응연일상원(緣念一如)
석가유미회(釋迦猶未會)
가설기능전(迦葉豈能傳)
옛 부처 생기기 전에
일원은 뚜렷이 밝았도다.
석가모니도 말하지 못했거니
가섭이 어찌 전할순가.

몸이 편하면 道 못 깨달아

요즘 젊은 스님들은 힘들게 수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쉽게 성취하려고만 합니다. 결합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평상

size : 1500 × 820 × 400 가격 150,000 할인가 130,000
1800 × 1030 × 480 가격 220,000 할인가 190,000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폴리프로필렌은 반영구적이며 촉감이 어린이 살결과 같은 느낌을 주며 조립식이라 이동이 간편 하고 또한 얼마든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 스며 들지 않아 비온 후 바로 앉을 수 있는 평상, 그릇 씻는 다이, 채소 등을 다이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상. 봄 여름 가을에 자연과 더불어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휴식공간.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구산업
www.bangaro.com
TEL : (063) 323-3010~1
FAX : (063) 323-3012

실용신안 제0305212
의 장 제0300518

전화 주문시 무료배송 지역 대리점 모집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 오케스트라 지휘자

-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범회 반주
-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재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할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레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 (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gou.ac.kr E-mail: educate@donggou.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여기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수련회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 선문정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참선수행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참선수행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초참선에서부터 화두드는 법까지를 정진하여 생활 속에서 참선이 이어지도록 다름과 같이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대 상 : 대학생이상 일반인 남녀 35명 선착순
2. 일 정 (3박 4일)
 - 1차 : 7월 11일(일) ~ 7월 14일(수)
 - 2차 : 7월 16일(금) ~ 7월 19일(월)
 - 3차 : 7월 23일(금) ~ 7월 26일(일)
 - 4차 : 7월 30일(금) ~ 8월 2일(월)
3. 장 소 : 흥천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선문정) (강원도 흥천군 내촌면 화성대 1리)
4. 참가비 : 6만원
5. 준비비 :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운동화
6. 접 수 : 온라인 접수 (농협 : 303040-51-017583 예금주 : 손수열)

전화접수 (서울 금강선원, 흥천 참선수련원)
접수마감 : 6월말

8. 문 의 : 서울 금강선원 02-445-8484 FAX 02-445-8043
 흥천 선문정 033-433-5845 ~ 6 FAX 033-433-5847

대한불교조계종 金剛禪院

“부처님 등불” 수공예양초

기원 전기(붓불 수공예 양초) (색상: 흰색, 자주, 청색, 노랑, 빨강 외 다수)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이러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혀 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믿을 수 있으며 30초 간격 미다 촛불이 흔들리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이 제품입니다.
* 정인정신을 담아 손으로 정성껏 제작한 수공예양초입니다.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자주) 소원성취(청색) 소원성취(노랑)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광고협찬 : 불교용품점

문의 전화 및 서울 02)734-1383 이화불교사 (조계사별) 서울 02)734-1383 이화불교사 (조계사별)
취급점 상담 대구 053)354-7880 만평불교사

계행 철저... 禪敎 겸비한 태고종 역사 산 증인

혜초 스님의 행장

혜초 스님은 스승인 전 종정 덕암 스님과 함께 청정비구의 몸으로 태고종에 남아 한국불교 제 2종단으로 일군 태고종 역사의 산 증인이다. 1950-60년대 불교계가 '비구-대처' 분규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금강산 유점사 서울포교당인 사간동 법륜사에 남아 종편 수호를 위해 뛰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철저한 지계와 수행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수십년간 법륜사 주지로 있으면서도 "물집을 가까이 하면 나태함이 찾아든다"며 재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금도 매일 새벽 2시 <석문의법>에 있는 행수해와 사성례로 일과를 시작해 <금강경> <원각경> '보

40년간 주석해 온 법륜사 총무원 청사 부지로 기증

안장' '법화경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를 차례로 독송한 후 예불을 올린다. <아미타경> 독송과 잠선 수행도 빠뜨리지 않는다. 스님이 태고종 스님들의 사표로 존경받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해인사 전문강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에서 수학하고 해인사, 선암사 선방에서 안거를 성만해 선교를 두루 갖췄다.

스님은 평소 종단 내의 큰스님에 대한 특별한 공경심으로 말없이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일흔 살이 넘는 나이에도 스승 덕암 스님

이 원적하는 순간까지 결에서 모셨다. 또 최근에는 40여년 동안 주석해 온 법륜사를 태고종 총무원이 입주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부지로 기증하는 등 직접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혜초 스님은 이후 태고총림 선암사 종정원에 주석하면서 가르침을 내렸다.

혜초 스님은 종정 추대를 수락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어를 내렸다.

일묵천하무이법(一默天下無二法) 태고청풍개화만(太古淸風開花滿) 월인천강경수청(月印千江鏡水淸) 청천백운만리봉(靑天白雲萬里通) 일묵천하무이법(一默天下無二法) 태고청풍이 활짝 피었구나 천강에 비친 달이 거울속의 물결까지 맑히니 푸른 하늘 흰 구름이 만리에 통했다.



혜초 스님은 찾아오는 모든이에게 차별없는 가르침을 내려준다.



6월 14일 태고종 제16세 종정으로 추대된 혜초 스님.

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재가자도 10계는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불교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에서 살면서 부처님 덕에 밥 먹고 사는 것을 양갓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스님노릇 할 하라는 말입니다. 참선으로 도를 이루든지, 경전공부를 잘해서 후학을 양성하든지, 의식을 잘해서 중생을 감화시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풀이라도 빨아 도 망을 깨끗이 하든지, 제대로 된 스님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출가자는 인과를 잘 알아야 합니다. 출가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행자는 바른 안목과 식견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과 스승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부처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른 생각, 바른 행을 지닐 수 없습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조화로운 세계 열린다

기 공부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선 신심이 깊어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심이 둔탁하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고 중노릇 제대로 하질 못해요. 또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증은 신해행을 모두 갖추었을 때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또 절에 예비 받으러 다니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토굴에서 만행 나왔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맘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스님들이 이러서는 불교계에 희망이 없습니다. 만행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안 거예요. 만행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실천하

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탁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탁발이 스님들 배불리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발도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만행과 탁발은 수행의 연속인 거지요. 수행을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고행을 즐겨워해야 바로 소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편하면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고행을 근본으로 삼으세요.

출가자, 계율 제 몸처럼 여겨야

불교의 생명력은 지계(持戒)에 달려 있습니다. 계율은 1600년 불교를 지탱해 온 힘이에요. 출가자는 계율을 제 몸처럼 여겨야 합니다. 지계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한 터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은 곧 도입니다. 그렇다고 지계가 출가자만의 의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영 스님(2)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희생자의 영령을 천도하는 49제 의식이 서울 영화사에서 월주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내가 큰절로 월주 스님께 인사드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도영 스님은 월주 스님의 망상좌인데, 은사스님인 월주 스님은 도영 스님을 보자 반가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도영 스님과 눈을 맞추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얘기하시며 흐트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 이야기며, 당시께서 하고 계신 사회 활동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이시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곁에서 지켜보니 도영 스님은 은사스님이 신이 나서 하시는 말을 너무나 편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은 주위사람도 편하게 만들었다.



그림·문병성

월주 스님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도영 스님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려고 하면, "아이, 도영, 도영" 하면서 애절한 애정을 보였다. 그러한 월주 스님에게서 나는 저절로 다정다감한 도영 스님의 모습이 연상되었다.

어른을 모시고 살다 보면 남는게 인내심 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종단 어른들은 30대 초반부터 조계종의 어른 노릇을 해 오시던 분들이다. 그러나 어른이 어른을 모신 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영 스님은 열아홉에 금산사로 출가했다. 지금의 금산사는 본사 사격을 갖추고 있고 산사의 분위기도 충만한 사찰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출가하기 전인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만 해도 금산사에 가면 농촌의 깊은 산속에 방치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부안과 김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독교 교세가 활발한 지역이다.

사운기를 갖 낚긴 이목구비 수려하고 키가 훗칠한 청년이 금산사에 입산해 금산사의 모습도 잘 생긴 당시의 모습처럼 바꾸어 놓았다.

금산사 도당의 곳곳을 보살피면서 당신 손 안 간곳이 없을 만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낙후되고 버려진 도당이 오늘날엔 귀족풍의 모

습으로 변모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늘 자비스런 모습으로 주위까지 편안하게 해주시는 도영 스님을 볼 때마다 스님의 위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된다.

보제존자 나옹 선사의 발원문에, 問我名者免三途(문아명자면삼도) 見我形者得解脫(견아형자득해탈) 라는 구절이 있다.

나의 이름만 들어도 삼악도를 면하고, 나의 모습만 보아도 해탈을 한다는 말씀이다.

사실을 넣으면 불혹(不惑)이라고 하는데 40이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의 그동안의 행과 습관의 결과에 따라 결모습이 형성되어지게 마련이다. 부처님말씀에 의하면 업(業)의 산물인 것이다.

도영 스님을 보면 그 말이 실감이 난다. 스님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표현 같다. 일평생을 나 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도영 스님은 쉽지 않은 그 일을, 남이 보기에는 쉽게 해 오셨다.

남 이기려하지 않고 늘 지고 사는 수행자

나는 영화사 회주이신 월주 스님과 망상좌 도영 스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부러웠다. 나의 은사이신 해암 스님에게도 도영 스님과 같은 상좌만 있었어도 당시엔 했던 공부의 절반이라도 사화에 회향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월주 스님은 참 삼좌복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 월주 스님께서 저렇게도 상좌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니 종단이나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 사람의 원력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을 해내는지를 나는 그동안 만난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그중의 한 분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다.

도영 스님은 "평생 남을 이기지 않고, 남이 나를 이기려고 하면 언제든 지고 살았다. 그것이 편하다. 또 이긴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늘 지고 산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젊은 월기에 남에게 싫은 소리를 조금만 들어도 벌컥 화를 내기 좋아하는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했다. 남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다고 흉보고, 욕심이 많다는 등 비판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나도 남에게 지고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좋은 어른을 옆에서 모시고 사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요즘 다시 실감한다.

■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육 법 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33243호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용암사에서 관전구 대웅전에 정엄의육법등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영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정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대단 단상상의 정엄 및 촛불 대응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정엄 가능함
- 6) 등 정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설원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중간 및 대리점 모집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성물로도 최고!



北 韓 産 金剛念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약석은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이 발산되고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활성탄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복원에선 일부고위출만 작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천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오염된공기,수맥과,OA기기,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용할 빈도가 절연신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점합니다. 신봉기도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원요일 공휴일도 상점합니다. 신봉기도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원요일 공휴일도 상점합니다. 신봉기도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원요일 공휴일도 상점합니다. 신봉기도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최고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평산에서 소양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특품으로 반입, 조립 시편하며 화제와 선행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기와 잡귀들이 기피해 해 도 도망쳐서 악연과 화를 풀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라 기도를 받으십시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중환으로 무병중인 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의 뜻으로 금강염주를 별도로도 추가 판매합니다.

1세트 가격	별도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35.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2단주 85.000원
108염주, 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입금구좌 : 농협 743-02-563237 (정해월)

문의 및 신청전화 (02)1723-0909

전국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송금으로 전국 어디든 받아 정산서를 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구 관훈동 177 대원 B/D 406호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배달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